

톱시드 내준 한국, 이란·일본 피하는 길 있나

월드컵 예선 평양원정 0-0
1위 이란, 바레인에 충격패
승점 획득 실패해 C조 3위로
천적 이라크와 경기서 패할 경우
한국 톱시드 '실날 희망'

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관문에서 속적 일본과 조우할까?

2020 FIFA(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조 추첨은 FIFA랭킹에 따라 시드 배정을 거쳐 이뤄진다.

평양원정에서 0-0무승부를 기록한 한국(37위)은 아시아 1·2위에 배정되는 톱시드를 이란(23위)과 일본(31위)에 내줬다. 이란과 일본이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지을 경우 한국은 자동으로 2번 시드가 된다. 현재 2승1무(승점 7·골득실+10)를 거둔 한국은 북한(승점 7·골득실+3)과 승점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H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남은 조별예선에서 전승을 하고 아시아 2위인 일본이 남은 전경기에서 모두 패한다면 톱시드를 차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결과와 상관없이 떨어진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한국은 걸끄러운 상대 일본과 이란을 피하는 길도 바라보게 됐다.

아시아 FIFA랭킹 1위 이란이 바레인에게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지역예선에서는 각 조 1위 8개국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최종예선에 진출한 12개국은 2개조로 나눠 AFC 산하 국가에 배정된 4.5장의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다룬다.

이란은 16일 바레인 리파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홈팀 바레인에 0-1로 졌다.

최근 '약체' 캄보디아를 14-0으로 대파한 이란은 이날 바레인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FIFA랭킹 105위인 바레인은 이란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수 아래로 평가받는다. 바레인은 홈에서 이란을 잡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패배로 승점 획득에 실패한 이란(승점 6)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라크(승점 7)와 바레인(승점 7)에 이어 C조 3위로 떨어질 것이다. 이란은 라이벌 이라크와의 2경기 등 총 5경기가 남아있다.



지난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북한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8년간 전쟁을 벌인 이란은 이라크와의 쉽지 않은 대결이 예상된다.

역대 A매치 전적을 살펴보면 28전 15승 9무 5패로 이란이 앞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상황은 좋

지 않다.

이란은 8년간 팀을 이끌던 포르투갈 출신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지난 1월 물러나고 벨기에 출신 마크 빌모츠 감독이 지난 5월 지휘봉을 잡았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벨기에 대표 출전한 빌모츠 감독은 아직 이렇다할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직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다.

두터운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구사하는 두팀은 축구 스타일도 비슷해 어느 팀이 승리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무관중·무중계 '평양 원정' 이의제기 검토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KBS2, 오늘 오후 5시 방송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취재진과 응원단 없이 치러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평양 원정' 경기와 관련해 이의 제기 등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16일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통상적으로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개최국이 원정팀의 미디어와 서포터스 활동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 취재진과 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 응원단의 방북이 무산된 만큼 북한 쪽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선수단을 통한 진위 파악 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FIFA와 AFC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남북대결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것과 관련해 "이런 역사적인 경기는 관중석이 가득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경기장에 팬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KBS는 '평양 원정' 경기 영상을 북한 측에서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17일 오후 5시에 방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저스 꺾은 워싱턴, 창단 첫 WS 진출

50년만에...세인트 루이스 4-0 꺾고 내셔널리그 챔피언

미국프로야구(MLB)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셔널리그(NL)를 제패했다. 워싱턴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4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7-4로 제압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3승 2패로 따돌리고 NLCS에 오른 워싱턴은 거침없이 4연승을 질주하고 최초로 리그 우승 삼패인을 터뜨렸다.

워싱턴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디비전시리즈, 챔피언십시리즈 등 3번이

나 축배를 들었다.

1969년 창단한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후신 격인 워싱턴은 2005년 연고지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이전했다.

워싱턴은 또 2014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래 5년 만에 와일드카드 팀으로 NL을 석권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해 NLCS에서 세인트루이스를 격파한 뒤 월드시리즈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워싱턴은 23일부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싸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뉴욕 양키스의 승자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연합뉴스

유민상 "호랑이 거포 제보 잇겠다"

KIA 마무리 캠프 주장...올 61경기 득점권 타율 0.341 '알짜 활약' "타점 올릴 때마다 쾌감...장타력 키워 내년엔 가을야구 하고 싶어"

가능성의 2019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 유민상이 발전의 마무리캠프를 이끈다.

KIA는 지난 14일 함평 첼린저스필드에서 마무리 캠프 일정을 시작했다. 한 시즌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중요한 무대를 연 KIA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캠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분위기 메이커' 유민상에게 캠프 주장을 맡겼다.

유민상은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팀도 가을 야구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한다"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소감을 말했다.

프로 8년 차인 유민상에게 올 시즌은 야구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지난 2017시즌이 끝난 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그는 올 시즌 61경기에서나와 175타수 51안타, 타율 0.291을 기록했다.

5개의 홈런도 날린 유민상은 득점권에서는 0.341의 타율을 찍으며 26타점도 기록했다. 유민상은 결정적인 순간 알짜배기 타격을 하면서 이적 후 두 번째 시즌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다.

탁아아웃에서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밝은 분위기에서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코칭스태프는 유민상을 캠프 주장으로 낙점했다.

유민상은 "마무리 훈련이라는 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선수들이랑 코치님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시키신 것 같다"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한 한 해인 것 같아서 기

분 좋다. 올 시즌 기대치를 올려놨기 때문에 준비 잘 해서 내년 시즌 기대치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저희도 가을 야구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않겠나"면서 마무리 캠프에 임하는 마음을 밝혔다.

올 시즌 KIA는 일본 오키나와가 아닌 함평 첼린저스 필드를 마무리캠프지로 선택했다. 유민상은 새로운 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유민상은 "해외에서 훈련하면 마음가짐이 다르긴 하다.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며 "훈련 동안 힘들었던 것을 쉬는 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고, 그런 게 더 훈련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운동 자체가 경쟁해서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경쟁하고 열심히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국내 훈련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타점"에 가장 욕심을 내는 유민상은 '장타'에 초점을 맞춰 이번 캠프를 소화할 계획이다.

유민상은 "개인적으로는 타점을 올리는 게 재미있는 것 같다. 득점권에서 치는 것 자체가 좋다. 내가 쳐서 점수가 나면 상대 투수를 이겼다는 쾌감이 있다"며 "타격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장타를 원한다. 올해 생각보다 많은 홈런을 치긴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아서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